

#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서해 시집

시지태

# 머리말

요즘 모두 힘들 때 다친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싶어 부족하지만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집은 출판 이전에 지인분들에게만 드리는 미리보기용이니, 책으로 평생 소장할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시인 서해



# 목차

- 머리말 · 01
- 순리의 예(例) · 03
-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 04
- 등대(燈臺) · 05
- 모(母) · 06
- 아침 · 07
- 수도꼭지 눈물 · 09
- 벗짚 · 10
- 비상(飛上) · 11
- 여름에 눈 · 12
- 피가 18번째 역류할 때 · 13
- 달 · 14
- 초승달 · 16
- 철창 안에서 · 17
- 소리 · 18
- 시편 24편 · 19
- 겸손 · 20
- 추후(追後) · 21
- 나의 시 · 22
- 개구리 · 23
- 나를 통해 당신까지 · 24
- 시인 서해의 이야기 · 25

## 순리의 예(例)

들판에 누워 그 바람 속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막 일어난 햇빛이 들판의 키로  
나를 바라본다.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들판의 풀은  
햇빛이 반가워서인지 여러 방향으로  
인사를 한다.

언제나 햇빛과 바람을 반기고,  
심지어 눈과 비까지도  
반기는 풀들...

오늘도 들판에 누워 그 바람 속에  
내 마음 맡길 수 있다면...

2222



#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단풍이 도화지 색으로 변해갈 즈음 저녁

하늘을 바라보니

각각의 꿈을 가진 자들의 북두칠성이

하늘의 독삭임을 막는다

자그마한 네모 공간에 여러 꿈들은 있지만

서로 꿈들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여러 일들 속에도

언제나 둥근 주근깨는 말하고 있다

도화지가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갈 즈음 저녁

우리는 거름종이에 걸려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 등대(燈臺)

문득, 인도하는 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늦가을 비 오는 날 합니다  
마치, 나의 등대처럼,

문득, 지나치는 한 가지 생각  
저기 가난한 곳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마치, 그들의 등대처럼,

문득, 그들의 등대지기가 나 자신이고  
내 안에 등대가 나를  
비추는 망상을 합니다  
마치, 내가 모두의 등대처럼.



# \* 모(母) \*

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 모(母)

내가 존경하기에  
넘치는 어머니의  
가르침.

나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신 어머니를  
지탄했지만

그것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미의 가르침.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희생하시는  
어머니, 모(母)



# 아침

밤에는 비가 오고  
아침이면 투명한  
아이 눈처럼 이슬이 생기는  
그런 아침입니다

바람이 불어  
모든 사람의  
마음 속까지 비우는  
그런 아침입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뭉쳐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포근함을 주는  
그런 아침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아침이면 저기





웃는 모습을 한 눈사람처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 수도꼭지 눈물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나오고 있다.

그 수도꼭지의 물은 땅의  
기운을 받고 사는 이들의 추출물이다.

그들이 온수를 틀듯이,  
냉수도 틀 수 있지만  
꼭지를 돌리지 않는다.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팔팔  
온수가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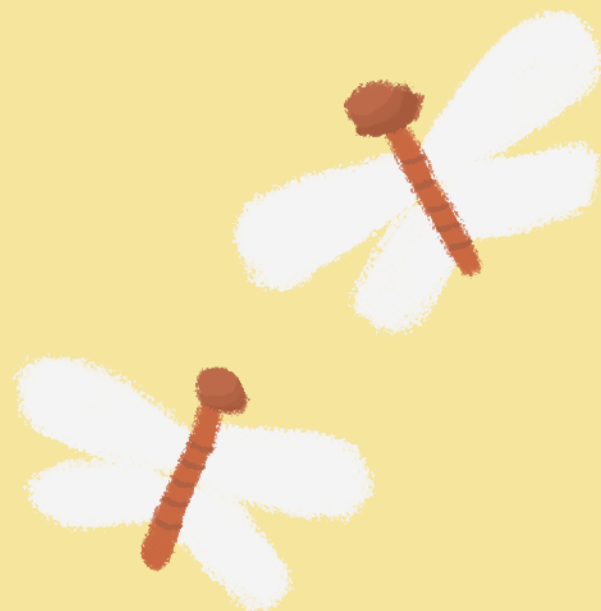
## 벚꽃

누군가에게 한겨울 이불이  
될 수 있는 이.

누군가에게 한 번의 진한 포옹을  
할 수 있는 이.

누군가에게 휴식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이.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가 될까



## 비상(飛上)

눈이 적절히 내린 다음 날,  
나는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의 생각 속  
눈은 위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눈이 아래에서  
위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도 바람에 의해  
올라갈 수 있는 것,  
왜 생각 못 했을까?

나를 원망하며 눈을  
내 안에 품고,  
바람과 함께 자그만한 비상의  
꿈을 꾸니다.



# 여름에 눈

하늘은 높다 하데,  
내 하늘은 낮다.

땅은 깊다 하데,  
내 땅은 낮다.





## 피가 18번째 역류할 때

피가 18번째 역류하는  
새벽 소년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피가 19번째 역류되기 전까지  
보상을 해드리길 꿈 꾸며  
한 꿩는 주전자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잠언 끝장을 읽습니다.





# 달

지친 일상에 잠들기 전  
정월대보름 다음 날,  
밝은 빛이 창문을  
통해 인사합니다.

그 빛은 모든 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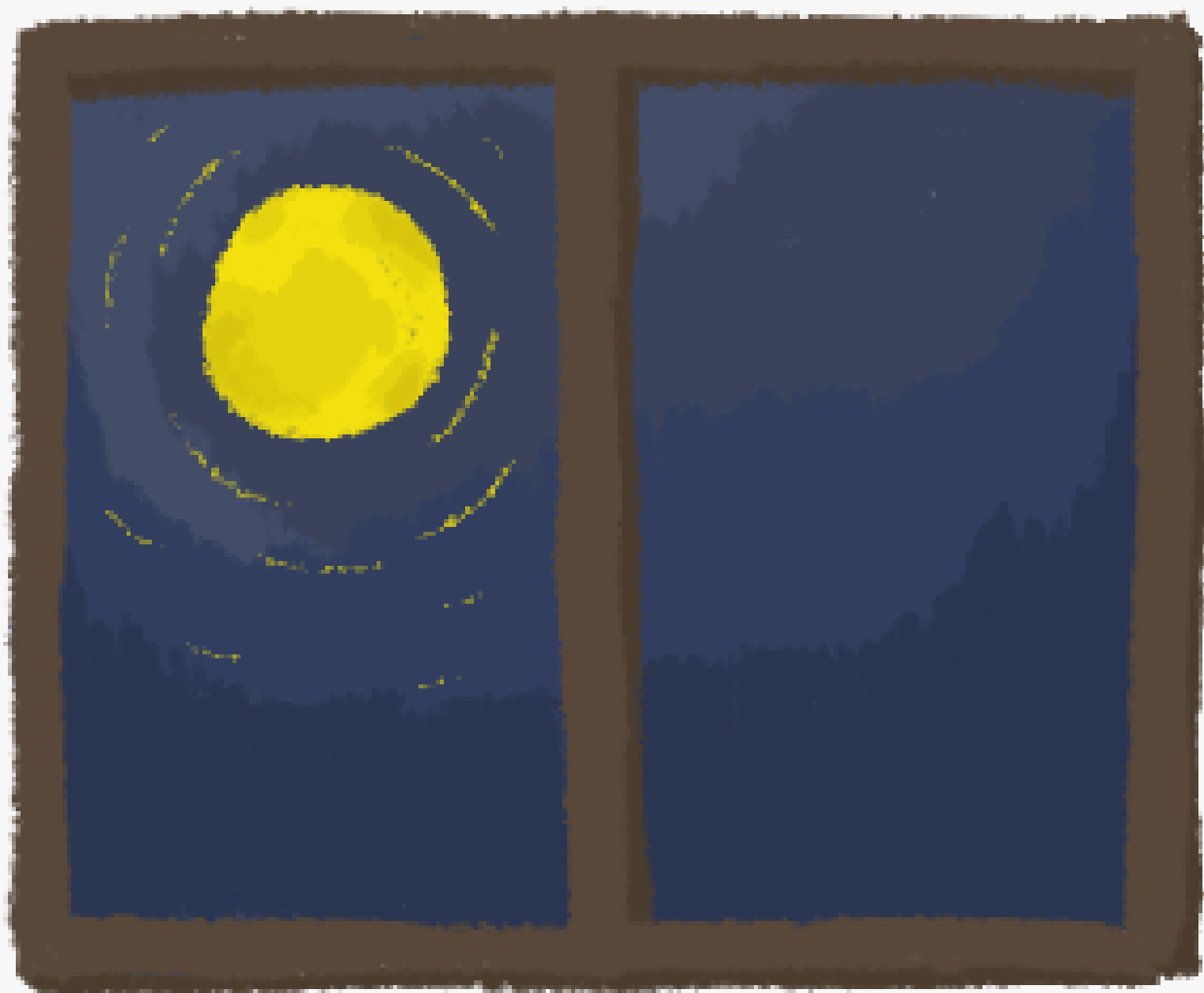
자연은 그 빛을  
반기는데  
아픈 허리는 그 빛을  
가리기 위해  
네모난 어둠을 사용합니다.

그 빛은 계속  
인사를 합니다.

네모난 어둠 사이로  
새어 나오는 요청으로 인해서

어둠을 치워 보니,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길  
기도하며 문을  
열어 둡니다.





# 초승달

저기 어지러진 달아  
너는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렇게 마음이 닳았느냐?

달이 말한다.

시간에 따라 겪는 일입니다.



# 철창 안에서

철창 안에서 나는 숨을 뱉는다.

철창 밖에서 새 우는소리와  
나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철창 안에서 내쉬었던 숨을 들이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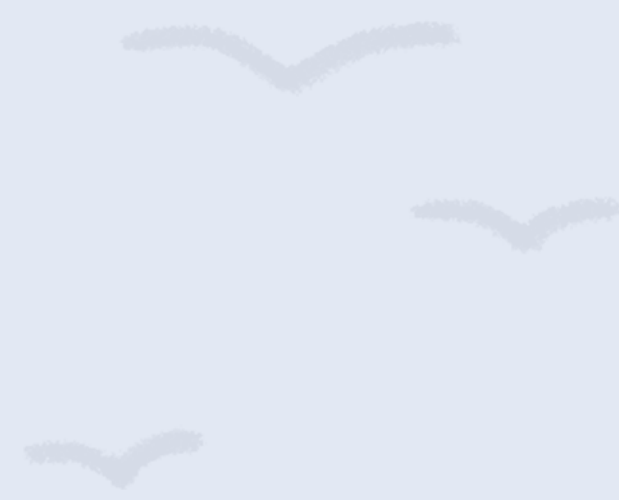


##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로서,  
새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분위기에 휘둘리는 나로서,  
구름 타는 바람의 기운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대화에서 행복을 찾는 나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 시편 24편 (부제:천국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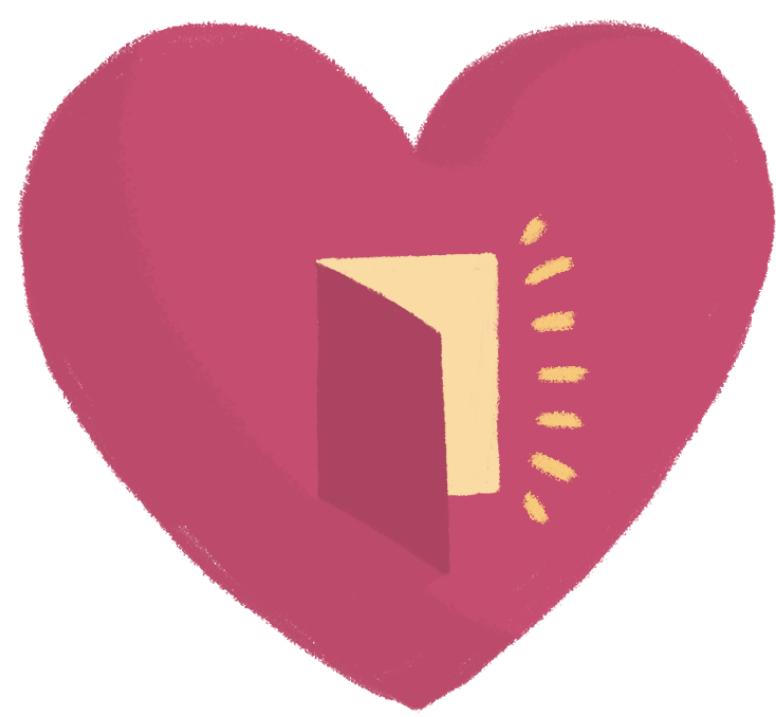
저를 문으로 사용하시며,

이왕이시면


사람을 가리어서 받는 잠금장치가 달린 문이 아닌,

항상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으로 사용하소서.







# 겸손

봄에는 벚꽃이 내리듯,

여름에는 땀이 내리듯,

가을에는 단풍이 내리듯,

겨울에는 눈이 내리듯,

인생에는 마음을 내리듯.



## 추후(追後)

날이 갈수록

치이는 내 인생에 대해

나 자신이

먼 아픔에 눈물을 볼 때가 많다.

달이 갈수록

슬퍼지는 내 인생에 대해

나 자신이

먼 상처에 눈물을 볼 때가 많다.

해가 갈수록

공허해지는 내 인생에 대해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 갈 때

먼 희망에 눈물을 볼 때가 많다

꽃이 피고

진다.

## 나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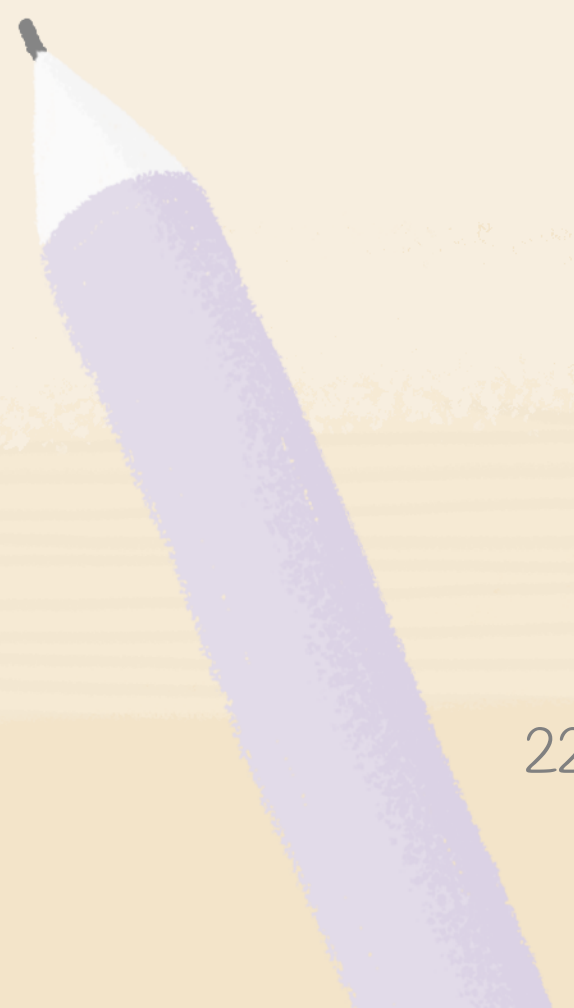
오늘도 나는 나의 시를 찾기 위해  
손을 움직입니다.

아직도 나의 시를 찾지 못함은  
나의 시가 미화로 지어지고,  
비유로 지어져서입니다.

나의 참 시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시간이 사라진 후  
다윗의 하나님  
저를 그의 나라로 불러주신다면,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지낼 때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시가 쓰일 것입니다.



# 개구리



봄비가 슬금슬금

내리던 날,

개구리가 옵니다.

개구리가 우는 이유는

봄비에 맞기 전

노래하면서의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봄비가 살금살금

그친 후,

개구리가 없습니다.





# 나를 통해 당신까지

나를 통해 당신까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눈동자에  
비추는 내가 있기에.

당신의 생각을 통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바다에  
비추는 해가 있기에.

당신을 통해 나까지.



## 시인 서해의 이야기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더욱 많은 쓰레기들 (일회용 마스크, 택배쓰레기..등)이 배출되고 있다. 분해까지 450년이란 세월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은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2040년까지 현재 규모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병들고 있는 해안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나 중국 및 북한과 공유하는 서해는 반폐쇄해<sup>半閉鎖海</sup>임으로 오염에 취약하고, 한국과 중국의 급진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해양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아픈 서해를 알리기 위해, ‘서해’로 필명을 정했다. 그리고 보니, 바다와 사람은 닮았다. 우리 감정은 파도처럼 요동 치기도 하고, 가끔은 잔잔한 바다처럼 지극히 평온한 때도 있다. 사랑을 밀물처럼 받기도 하며, 썰물처럼 주기도 한다. 바다가 쓴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인이 쓴 것 같은 시를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이 ‘너’와 ‘나’ 관계를 초월하여 ‘우리’라는 것을 독자가 인식하면 좋겠다. 시집 첫 장을 읽으면서 들어온 새로운 감정의 밀물이 마지막 장에서는 사랑의 썰물처럼 퍼져 나가서 서해를 살리는데 기여하기를 시인은 소망한다.

##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기획 태초에

편집 정진희

디자인 정상희

문의 [general@cgtae.com](mailto:general@cgtae.com)



우리는 거름종이에 걸려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시지태**